

# 馬王堆 發掘 經脈書 臂陰經 研究 : 經脈의 直接 知覺

송석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천지연한의원

## Hand-Yin Meridians of Unearthed Mawangdui Medical Texts Were Described by the Haptic Exploration

SONG Seok-mo

*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Cheonjiyeon Korean Medicine Clin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some early Chinese meridians were described by haptic exploration of the arterial pulse. The method is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passages of the Mawangdui medical texts, the oldest meridian monographs, are translated based on perceptual anatomy. Second, the pulse is haptically searched for in the palm, lower arm, upper arm, armpit, and torso of the human body. Finally, their locations are compared with the transl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ulse locations detected on the body were mostly consistent with the routes of the meridians described in the texts. So meridians were haptically detectable pulse routes. What is known today as the flow direction of hand-yin meridians is actually the direction of searching the pulse. Our result runs counter to Huang Longxiang's claim that the route of the meridians are virtual routes set by speculation. Our findings also dispute Vivien Shaw's claim that the meridians of Mawangdui medical texts were discovered by anatomical dissection. They also refute the claim that meridians were discovered by the extrasensory perception of the inner sight (內觀) and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meridian sensitive person. The hand-yin meridians of Mawangdui medical texts are well described so that anyone can find them by touching them with their fingers.

Key words : Mawangdui, meridians, haptic, arteries, medical text

### I. 서론

현대의 경락연구는 크게 경락현상연구와 경락실질연구로 구분된다. 전자는 循經感傳現象과 가시적인 循經現象을 중심으로 한 현상적 접근이고 후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화학적 기전을 탐구한다. 경락실질연구는 경락과 완전히 상응하는 인체구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에 우회적으로 열·빛·소리·전기·자기·동위원소 등의 객관적 측정예 중점을 둔 것이다.<sup>1)2)</sup> 순경감전현상 연구는 일본의 長濱善夫와 丸山昌郎이 1949년에 보고한 경락민감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3)</sup> 이후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경락연구는 순경감전현상을 위주로 한 경락현상연구가 주도하였다.<sup>4)</sup> 이러한 배경하에서 1981년 孟昭威는 『足臂十一脈灸經』(이하 『족비경』)과 『陰陽十一脈灸經』(이하 『음양경』)(통칭 『맥구경』)의 11脈은 안마나 침구치료로 발생한 感傳線이라고 주장하였고, 1985년 毛良은 이에 대해 11맥은 모두 血脈이라고 반박하였다.<sup>5)</sup> 혈관이 아니라 혈맥이라 한

접수 ▶ 2022년 04월 28일 수정 ▶ 2022년 05월 19일 채택 ▶ 2022년 05월 20일  
교신저자 ▶ 송석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6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락경혈학교실  
Tel : 02-555-5533 E-mail : aether@hanmail.net

- 1) 李定忠, 傅松濤, 李秀章. 「經絡研究概況及其存在的實證 - 關於經絡的理論與臨床應用研究之一」. 中國針灸. 2004;24(11):773-778.
- 2) Juan Li, Qing Wang, Huiling Liang, Haoxu Dong, Yan Li, Ernest Hung Yu Ng, et al. 「Biophysical characteristics of meridians and acupoints: a systematic re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2012:1-6.
- 3) 長濱善夫 著. 박종갑 譯. 『鍼灸基礎學』. 서울: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3:162-163.
- 4) 李定忠, 傅松濤, 李秀章. 「經絡研究概況及其存在的實證 - 關於經絡的理論與臨床應用研究之一」. 中國針灸. 2004;24(11):773-778.
- 5) 毛良. 「足臂十一脈灸經의 脈是 "感傳線" 嗎? - 與孟昭威同志商確」. 上海針灸雜誌. 1985;4:33-35.

것은 혈관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경맥 개념을 유지하려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량의 반박은 아쉽게도 문헌학적인 것에 그쳤고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고전문헌의 경맥을 감전선으로 보는 학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sup>6)</sup> 劉澄中은 심지어 雙包山출토 경맥인형의 맥도 “脈人”의 순경감전현상으로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중국에서는 경락의 물리적 혹은 해부학적 대응물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의학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어려운 감전현상과 같은 주관적 경험으로 퇴행하였거나 黃龍祥의 경우처럼 경락을 가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서양권 연구의 경우 경락현상연구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사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 특기할만한 것은 침 자극 후 활성화되는 신경경로(neural pathway)에 대한 연구<sup>8)</sup>와 경락의 해부학적 基質은 주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천층근막(fascia superficialis)이라는 연구<sup>9)</sup>이다. 한국에서는 봉한관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sup>10)11)</sup>

경락의 기원과 관련해서 이상의 현대연구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락을 발견하고 이용한 고대 중국인들이 기반하고 있는 문명이나 실제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정교한 전기·전자장비 및 관찰도구들을 이용한 것이고 고대인들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 경락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순경감전현상과 같은 주관적 경험은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인의 실제 행동과 지각체계에 기반하여 경락의 기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經絡의 실체나 존재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지각성을 기준으로 논의가 되어왔다. 볼 수 있는가 아닌가가 기

준이 되므로 보이지 않는 경락의 비가시성은 그 실존 여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전적 經穴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시각체계 뿐만 아니라 촉각체계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sup>12)</sup> 경혈의 위치정보와 형태정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피부 아래에 덮혀있어서 시각체계만으로는 불완전하게 지각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촉각적으로 탐사해야 한다. 촉각적 탐사(haptic explorations) 혹은 촉각적 탐색(haptic search)은 팔과 손가락 관절을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접촉정보를 포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혈의 촉각적 속성을 경혈과 경락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경락에도 촉각적 속성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한편 경락이 혈관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靈樞·經脈』에 기록되어 있다. “경맥 12개는 分肉 사이를 숨어서 가므로 깊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 항상 보이는 것은 足太陰[경맥]이 內踝의 위를 지나가는 곳인데 감추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맥 중에 [표면으로] 떠서 항상 보이는 것은 모두 絡脈이다.”<sup>13)</sup> “경맥은 항상 볼 수 없다. 그것의 허실은 氣口로 알 수 있다. 맥 중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낙맥이다.”<sup>14)</sup> 낙맥은 상태에 따라서 청색, 적색, 흑색을 나타내고 침으로 찔러서 출혈시킬 수 있으므로<sup>15)</sup> 명백히 피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혈관, 특히 정맥을 가리킨다. 위에서 기구는 寸口를 지칭하고 동맥의 박동을 현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결국 『영추』의 위 기록들에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경맥은 동맥에 대응하고 낙맥은 정맥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맥은 특수한 부위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나 촉각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다. 반면에 낙맥은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관찰가능하다.

경락을 통한 진단 역시 경락과 동맥 간의 연관성을 시사

6) 李曉君. 「論經絡與血脈的源流異同」. 中國中醫基礎雜誌. 2003;9(6):6-10.

7) 劉澄中. 「經脈論」與“血脈論”孰是孰非. 中華醫史雜誌. 2006;36(4):231-238.

8) John C Longhurst. 「Defining meridians: a modern basis of understanding」.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2010;3(2):67-74.

9) Norbert Maurer, Helmut Nissel, Monika Egerbacher, Erich Gornik, Patrick Schuller, Hannes Traxler. 「Anatomical evidence of acupuncture meridians in the human extracellular matrix: results from a macroscopic and microscopic interdisciplinary multicentre study on human corpse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2019:1-8.

10) 송지정, 황성연, 안성훈, 임동명. 「대한경락경혈학회지 연구동향」.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6;33(1):1-11.

11) 이로민, 남사수, 이상훈, 김용석. 「침 관련 근거중심의학의 연구 동향 -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9; 26(2):147-158.

12) 송석모. 「『영추·본수』의 한 연구: 경혈의 시각성과 촉각성」.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21;38(4):290-307.

13) “經脈十二者,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 其常見者, 足太陰過於內踝之上, 無所隱故也.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 『靈樞·經脈』.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263.

14) “經脈者, 常不可見也. 其虛實也, 以氣口知之. 脈之見者, 皆絡脈也.” 『靈樞·經脈』.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266.

15) “故諸刺絡脈者, 必刺其結上. 甚血者, 雖無結, 急取之, 以寫其邪而出其血. 留之發為痺也. 凡診絡脈, 脈色青, 則寒, 且痛, 赤則有熱. 胃中寒, 手魚之絡多青矣. 胃中有熱, 魚際絡赤. 其魚黑者, 留久痺也. 其有赤, 有黑, 有青者, 寒熱氣也.” 『靈樞·經脈』.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266-267.

한다. 예를 들어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脈法』에서는 “맥에는 본래 움직이는 곳들이 있다. 정강이의 少陰, 팔의 太陰·少陰이 주로 움직이고 [만약] 빠르면 병에 걸린 것이다.”<sup>16)</sup>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소음·태음은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리키며 진단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黃龍祥은 나아가 손목·발목·머리·목 주위 동맥의 진단법을 통해서 경락의 노선이 발견되고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상의 내용을 경맥에 한정해서 정리하자면 경맥은 동맥에 대응하고 동맥에는 축각적 속성이 있으므로 경맥도 축각적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축각적 속성은 축각적 탐사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맥의 일부는 축각적 탐사를 통해 지각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정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맥 문헌<sup>18)</sup>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臂太陰脈(臂鉅陰脈)과 臂少陰脈 기록에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II. 본론

『맥구경』은 고전 경맥학설이 확립된 『영추·경맥』보다 저작 시기가 빠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단순하다. 따라서 초기 경맥학설의 원형을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양 『맥구경』은 1973년 12월 湖南省 長沙市 동쪽의 馬王堆 3號墓에서 발굴되었다. 묘의 주인은 西漢 초기 長沙國의 丞相 軟侯利倉의 아들로 밝혀졌다. 출토된 紀年木牘으로부터 추정된 매장연대는 BC 168년이다. 책자에 보이는 避諱로부터 책자가 쓰여진 연대가 대략 秦始皇의 통일(BC 약 221)에서 漢文帝 10년(BC 168) 사이로 추측된다.<sup>19)</sup> 『족비경』의 내용은 足太陽脈, 足少陽脈,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太陰脈, 足厥陰脈, 臂太陰脈, 臂少陰脈, 臂太陽脈, 臂少陽

脈, 臂陽明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음양경』은 甲本과 乙本 두 종류가 발굴되었다. 일본의 훼손 정도가 심하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갑본과 일치한다.<sup>20)</sup> 『음양경』의 내용은 (足)鉅陽脈, 少陽脈, 陽明脈, 肩脈, 耳脈, 齒脈, (足)太陰脈, 厥陰脈, 少陰脈, 臂鉅陰脈, 臂少陰脈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마왕퇴에서 출토된 책자들은 원본의 손상, 표주과정에 의한 훼손이 있는 데다가 고대 隸書體로 쓰여져 있어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다.<sup>21)</sup> 따라서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현대 중국의 표준 楷書體로 전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마왕퇴 출토 문헌에 관한 최근 40여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하고<sup>22)</sup> 현재까지 나온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인 판본인<sup>23)</sup>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을 주텍스트로 삼았다.

### 1. 『맥구경』 비음맥의 지각적 해부학

『맥구경』 본문의 내용을 실제 인체에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지각적 해부학(perceptual anatomy)의 용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각에 관한 생태학적 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을 인간의 신체와 행동에 적용하여 신체의 부분과 신체의 방향 및 위치를 관찰자가 지각하는 대로 기술하는 것이 지각적 해부학이다.<sup>24)</sup> 이것의 고대 인체지식에 대한 응용은 『黃帝內經』의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다.<sup>25)</sup> 여기서는 『맥구경』 비음경에 해당되는 내용만 발췌하여 적용하였다. 인간의 신체는 머리, 목, 어깨, 몸통, 팔, 손, 손가락, 다리, 발, 발가락 등과 같은 신체영역들로 구분된다. 본고에서 다룬 『맥구경』 비음경에서 “臂”과 “臑”가 신체영역에 속한다. 신체영역은 용적을 가진 입체적 형태이지만 하나의 시점에서 접근할 때에는 일정한 곡률을 가진 표면으로 지각된다. 이 표면은 모발, 점막, 안구 등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부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피부 아래에 있는 구조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곡률이

16) “夫脉固有動者，訖之少陰，臂之太陰少陰，是主動，疾則病。”『脈法』，裘錫圭編，『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5』，北京：中華書局，2014：206.

17) 黃龍祥，『中國針灸學術史大綱』，北京：華夏出版社，2001：783.

18) 『史記·扁鵲倉公列傳』에는 淳于意가 스승인 公乘陽慶으로부터 『脈書』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황제내경』에 인용된 문헌 중에도 『脈經』 등 맥 관련 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張燦甲，『黃帝內經文獻研究』，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2005：85-103.

19) 湖南省博物館編，『馬王堆漢墓帛書』，長沙：岳麓書社，2013：1-2.

20) 이 밖에 張家山에서 출토된 漢簡 『脈書』 중에 『음양경』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흔히 丙本으로 부른다. 趙爭，「古書成書年代與古書年代學問題 探研—以出土古脈書『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爲中心」，中國典籍與文化，2016：96(1)：7-12.

21) 湖南省博物館編，『馬王堆漢墓帛書』，長沙：岳麓書社，2013：9-12.

22) 鄭健飛，『馬王堆醫書釋文校讀及殘片綴合札記』，文史，2017：118(1)：5-27.

23) Chunyu Liu, 「Review on the studies of unearthed Mawangdui medical books」, Chinese studies, 2016：5(1)：6-14..

24) 신체를 절개하여 내부를 관찰하는 일반적인 해부학적 절개(anatomical dissection)나 신체 구조물의 물리화학적 속성을 연구하는 실질 해부학(physical anatomy)과 구별된다.

25) 송석모，『『영추·본수』의 한 연구：경혈의 시각성과 축각성』，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21：38(4)：290-307.

변화하고 곡률이 현저하게 변하는 장소가 오목면과 볼록면이다. 오목면이나 볼록면이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 현저하게 지각되면 주변과 구별되어 지각되는 부분영역이 된다. 『비음경』의 “腋”, “脅”, “掌”이 부분영역에 속한다. 신체 일부의 형태를 이루는 곡면의 윤곽이 변화하는 전이지대는 가장자리이다. 이것을 『비음경』에서는 “廉”이라고 부른다. 줄처럼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며 신체영역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나 촉각적인 단단함이 변화하는 볼록면은 힘줄이다. 『비음경』에서는 이것을 “筋”이라고 부른다. 역시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나 신체영역의 움직임에 따른 모양과 단단함의 변화가 없으면서 촉각적 탐사의 누르는 압력에 비례해서 촉각적인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혈관이다. 『비음경』의 “脈”이 여기에 속한다. 맥 중에서 촉각적으로 탐지할 때 규칙적인 움직임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動脈”이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촉각적 형태의 변화를 전혀 느낄 수 없고 오직 단단함만이 느껴지는 것은 뼈이다. 『비음경』에 나오는 “骨”이 여기에 속한다. 인간은 두 개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지만 마치 하나의 눈으로 본 것처럼 세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시각을 외눈박이 눈(cyclopean eye)이라고 하며 모든 지각되는 시점들은 이 외눈박이 눈으로부터 지각되는 단일한 시각적 방향을 가진다. 관찰자가 지각하는 전

후·내외·상하의 방향은 관찰자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기중심적 준거틀(egocentric reference frame)에 의해 결정된다. 관찰자가 자신의 신체영역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점에서 가까운 곳이 안이 되고 먼 곳이 바깥이 된다. 『비음경』에서는 전자를 “內”라고 부른다. 인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지면을 기반으로 삼아 중력방향을 기준으로 자세를 취한다. 특정 신체영역이나 부분영역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즉 지면을 향하는 곳이 아래가 되고 반대방향이 위가 된다. 『비음경』에서는 이것을 각각 “上”과 “下”라고 부른다. 고전문헌에서 상하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완의 경우 인체공학(ergonomics)에서 손목의 중립위치(neutral position)라고 부르는 자세(약수하는 모양)가 기준이 된다. 『맥구경』과 『황제내경』 등 고전 의학문헌에서 신체의 방향은 피관찰자의 가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정 신체부분의 표면이나 범위 안의 위치는 그것의 한계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비음경』에서는 “中”이라고 부른다.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 이상의 물체나 장소들로부터 상대적인 거리가 있는 위치는 그 물체나 장소들 사이에 있는 것이다. 『비음경』에서는 이것을 “間”이라고 부른다.

표 1. 『맥구경』 비음맥의 지각적 해부학

지각적 해부학	설명	『맥구경』
신체영역	신체가 구분되는 단위	臂·臑
부분영역	주변과 구별되어 현저하게 지각되는 오목면이나 볼록면	腋·脅·掌
가장자리	곡면의 윤곽이 변화하는 전이지대	廉
힘줄	신체영역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이나 촉각적 단단함이 변화하는 볼록면. 줄처럼 길이가 길고 폭이 좁다.	筋
혈관	촉각적 탐사의 압력에 비례해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볼록면. 길이가 길고 폭이 좁다. 신체영역의 움직임에 따른 모양과 단단함의 변화가 없다. 규칙적인 진동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	脈
뼈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다. 단단함만이 느껴진다.	骨
안	피관찰자(대상)의 가상의 외눈박이 시점에서 가까운 곳	內
위·아래	지면을 기준으로 중력방향이 아래이고 그 반대방향이 위	上·下
가운데	특정 신체부분의 범위나 한계 안의 위치	中
사이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 이상의 물체나 장소들로부터 상대적 거리가 있는 위치	間

## 2. 『脈灸經』 臂陰脈의 翻譯

### 1) 『足臂經』 臂太陰脈

(1-1)循筋上廉, (1-2)以秦臑內, (1-3)出腋內廉, (1-4)之心.

臑는 上腕(骨)을 의미한다.<sup>26)</sup> 다른 동사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秦”의 의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湊(至, 도달하다)”의 의미라는 설이고, 또 하나는 “向(향하다)”의 의미라는 설이고, 마지막 하나는 “走(가다)”의 의미라는 설이다.<sup>27)</sup> 『맥구경』의 모든 경맥의 노선을 살

26) 裘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5』, 北京:中華書局, 2014:193.

해보면 관찰자가 어떤 물체가 어떤 장소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광경을 묘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마지막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 周一謀와 馬繼興 역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sup>28)</sup> 『족비경』의 모든 경맥은 사지의 원위부에서 머리쪽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1-1)은 문맥상 下腕 부위에 해당한다.

**번역 :** (1-1)[하완의] 힘줄의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1-2)상완의 내측을 가고 (1-3)겨드랑이의 안쪽 가장자리로 나와서 (1-4)심장으로 간다.

(1-2)의 “走”를 “(으)로 가다”로 해석하지 않고 “을/를 가다”로 해석한 이유는 맥이 어떤 장소를 지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직접 이동하거나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완의 안쪽에서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현저하게 나타나는 두 줄의 힘줄을 관찰할 수 있다. 『맥구경』에서는 이 두 줄의 힘줄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고 있다. 이 힘줄들이 하완의 안쪽에서 비음맥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힘줄들의 위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머리쪽으로 향해서 만지면서 올라가면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상완의 내측은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여기서 손가락으로 자세히 탐색해보면 뼈의 윤곽을 따라서 느껴지는 맥박을 찾을 수 있다. 겨드랑이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탐색해보면 맥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지와 겨드랑이에서 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맥박의 노선들이 비태음맥인 것이다. 이하 설명할 모든 맥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陰陽經』 甲本 臂鉅陰脈<sup>29)</sup>

(2-1)在於手掌中, (2-2)出內陰兩骨之間·上骨下廉·筋之上, (2-3)出臂[內陰], (2-4)入心中.

“內陰”은 그늘지고 어둡고 타인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 신체의 안쪽을 부르는 명칭이다. (2-2)는 문맥상 하완 부위에 대해 (2-3)은 상완 부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번역 :** (2-1)손바닥 가운데에서 (2-2)[하완의] 안쪽 두 뼈 사이·위쪽 뼈의 아래쪽 가장자리·힘줄의 위쪽으로 나오고 (2-3)팔의 안쪽으로 나와서 (2-4)심장 가운데로 들어간다.

여러 주석에서 “出內陰兩骨之間”, “上骨下廉”, “筋之上” 세 구절을 각각 다른 세 곳의 위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이 세 구절은 사실상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두 뼈 사이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두 뼈 중에서 위쪽 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찾고, 그 다음 다시 힘줄의 위쪽을 확인해보라. 직접 이 구절대로 손으로 만져보면 비슷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손의 중립자세에서 위쪽 뼈는 요골(radius)이고 아래쪽 뼈는 척골(ulna)이다. 힘줄은 위에서 설명한 바로 그 힘줄들이다. 힘줄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머리쪽을 향하여 촉각적으로 탐색하면서 올라가면 맥박이 긴 줄 모양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하완 부위의 비태음맥이다.

## 3) 『足臂經』 臂少陰脈

(3-1)循筋下廉, (3-2)出臑內下廉, (3-3)出腋, (3-4)秦脅.

(3-1)은 문맥상 하완 부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번역 :** (3-1)[하완의] 힘줄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3-2)상완골의 내측 아래쪽 가장자리로 나오고 (3-3)겨드랑이로 나와서 (3-4)옆구리를 간다.

하완의 힘줄은 위에서 이미 말한 그 두 개의 힘줄이다. 그 두 개의 힘줄을 하나의 단위로 삼는다면 손의 중립자세에서 아래쪽 힘줄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길이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이다. 손가락으로 힘줄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맥박을 연속적으로 느낄 수 있다. 상완골의 내측을 손가락으로 깊이 눌러보면 뼈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만질 수 있다. 이 가장자리 부근을 따라서 아주 자세히 탐색해보면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맥박의 연속이 상완 부위에서 『족비경』의 비소음맥이다.

상완 부위에서 『음양경』의 비소음맥과 비교해보라. 『음양경』의 관찰자는 『족비경』의 관찰자가 찾은 것을 발견하지

27) 裴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5』, 北京:中華書局, 2014:193.

28) 周一謀, 蕭佐桃 編, 『馬王堆醫書考注』,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1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208.

29) 乙本은 甲本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於” 대신 “于”로 되어있다. 裴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6』, 北京:中華書局, 2014:12.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족비경』에서 『음양경』으로 진화해 갔다는 기존의 발전사적인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헌은 발전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관찰자에 의한 독립적인 저작들로 보아야 옳다.

겨드랑이 부위에서도 촉각적으로 맥박을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옆구리는 겨드랑이에 비해 상당히 넓은 범위이다. 따라서 맥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겨드랑이의 맥박을 먼저 찾고 그 부근을 중심으로 조금씩 옆구리를 향하여 자세히 탐색하면 맥박이 느껴지는 가늘고 긴 줄모양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탐색 가능한 연속적인 맥박의 노선이 바로 비소음맥이다.

#### 4) 『陰陽經』 甲本 臂少陰脈<sup>30)</sup>

(4-1)起于臂兩骨之間·下骨上廉·筋之下, (4-2)出臑內陰, (4-3)入心中.

(4-1)은 문맥상 하완 부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번역 :** (4-1)팔의 두 뼈 사이·아래쪽 뼈의 위쪽 가장자리·힘줄의 아래에서 시작해서 (4-2)상완골의 안쪽으로 나와서 (4-3)심장 가운데로 들어간다.

여러 주석에서 “臂兩骨之間”, “下骨上廉”, “筋之下”를 세 곳의 다른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으며 맥을 탐색하는 절차를 친절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하완에서 두 뼈의 사이를 찾는다. 그 다음 두 뼈 중 아래쪽 뼈의 위쪽 가장자리를 탐색한다. 그 다음 힘줄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탐색한다. 직접 이 절차대로 행동해보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장소들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촉각적으로 맥박의 연속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 촉각적인 연속체들이 비소음맥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맥구경』의 비음맥들은 결코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오로지 촉각체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오랜 시간과 시대를 거치면서 경맥을 촉각적으로 찾는 이처럼 간단한 방법이 잊혀졌던 것이다. 경맥의 비가시성이 경맥의 비존재인 것처럼 오해되었고 경맥에 대한 현재까지의 모든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 3. 臂陰脈은 動脈의 觸覺的 探查에 의해 記述되었다

이상의 『맥구경』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대로 누구나 신체에서 무언가 촉각적인 것 즉 맥박의 느낌을 실제로 찾을 수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맥구경』의 내용 그대로 손바닥 가운데·하완의 내측·상완의 내측·겨드랑이·옆구리의 뼈와 힘줄을 지표로 삼는다. 해당 범위에서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면서 적절한 촉각적 압력에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며 맥박이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촉각적 탐사를 한다. 탐사를 통해 맥박이 느껴지는 곳을 신체 표면에서 확인한다. 『맥구경』의 내용을 따라 임상에서 얻은 탐색 결과들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그림 2처럼 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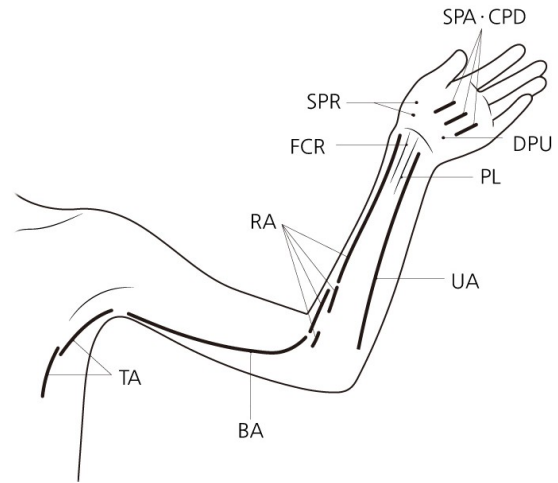


그림 1. 맥박을 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위치들의 도식화

손바닥과 상완·하완의 내측, 겨드랑이, 옆구리에서 촉각적으로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위를 검은 색의 굵은 선이나 점으로 표시하였다. 『맥구경』 비태음맥들의 묘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맥박이 느껴지는 자리에 대응하는 동맥은 다음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동맥과의 정확한 대응은 해부학적 절개나 영상진단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SPA : Superficial palmar arch, CPD : Common palmar digital arteries, SPR : Superficial palmar branch of radial artery, DPU : Deep palmar branch of ulnar artery, FCR : Flexor carpi radialis tendon, PL : Palmaris longus tendon, RA : Radial artery, UA : Ulnar artery, BA : Brachial artery, TA : Lateral thoracic artery

『足臂經』 臂太陰脈 : RA-BA-AA-Heart, 『陰陽經』 臂鉅陰脈 : SPA·CPD-RA-BA-Heart, 『足臂經』 臂少陰脈 : UA-SUC-TA, 『陰陽經』 臂少陰脈 : UA-BA-Heart

30) 乙本은 甲本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於” 대신 “于”로 되어있다. 裘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6』. 北京:中華書局. 20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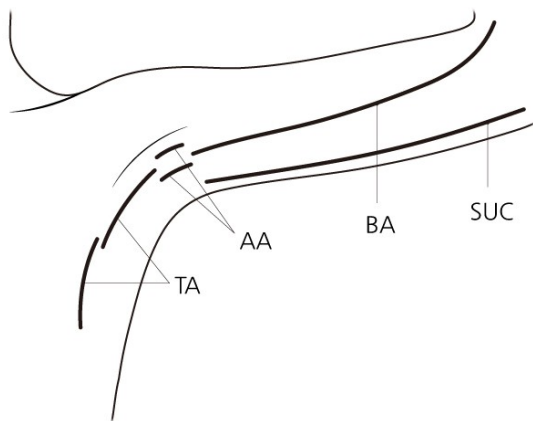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확대

상완의 내측과 겨드랑이 부분을 확대하여 그린 그림이다.  
SUC : Superior ulnar collateral artery, BA : Brachial artery, AA : Axillary artery, TA : Lateral thoracic artery

근육이 발달할수록 맥박의 탐지가 어렵다. 성인 보다 어린이에게서, 남성 보다 여성에게서 박동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맥박은 하완과 상완의 하단에서는 비교적 잘 느껴지나 머리쪽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찾기가 어렵다. 손바닥과 겨드랑이, 옆구리에서는 맥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고도로 집중을 하여야 간신히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피부 표면으로 접근하는 각도에 따라서 맥박을 찾을 수 있는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미는 힘에 따라 맥의 위치가 변화하기도 한다. 손바닥의 맥박은 단편적으로 느껴져서 어떤 노선을 결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손바닥·하완의 내측·상완의 내측·겨드랑이·옆구리에서 느껴지는 모든 맥박들의 위치와 범위는 그림에 표시하였다. 표시된 이외의 부분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촉각체계의 능력에 의존해서 탐색하는 것이므로 손가락 말단의 촉각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맥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손가락의 끝부분을 통해 맥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의 범위와 『맥구경』 비음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경맥의 노선이 일치하고 있음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족비경』의 비태음맥과 『음양경』의 비거음맥의 노선들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겹치는 부분은 사실상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 『족비경』의 “筋上廉”과 『陰陽經』의 “內陰兩骨之間·上骨下廉·筋之上”은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 『陰陽經』의 기술이 더 자세하기는 하

지만 어차피 맥박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의 기술이라도 찾는 데 큰 차이는 없었다. 하완 내측 정중선 하단에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두 줄의 큰 “힘줄(筋)”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sup>31)</sup> 두 개의 줄로 보이지만 『맥구경』에서는 하나씩 구분해서 지칭하지 않고 있다. 『족비경』 비소음맥의 “筋下廉”과 『음양경』 족소음경의 “臂兩骨之間·下骨上廉·筋之下” 역시 동일한 장소로 확인되었다. 『음양경』의 기술이 더 자세하지만 역시 맥박을 찾는 데에는 “筋下廉”만으로 충분하였다. 비태음맥은 비거음맥에는 없는 겨드랑이 부위를, 비거음맥은 비태음맥에는 없는 손바닥 부위를 점유하고 있다. 『음양경』의 비소음맥은 상완에서 심장으로 가는데 반해 『족비경』의 비소음맥은 상완에서 심장으로 가지 않고 옆구리로 가고 있다. 『음양경』의 관찰자는 상완부위에서 비거음맥과 비소음맥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노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에 『족비경』의 관찰자는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

『맥구경』의 기술대로 신체를 탐색하려면 경혈의 탐색에서와 마찬가지로 촉각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up>32)</sup> 특히 “안쪽 두 뼈 사이”, “위쪽 뼈의 아래쪽 가장자리”, “아래쪽 뼈의 위쪽 가장자리”, “팔의 두 뼈 사이”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촉각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또한 “힘줄의 위쪽 가장자리”, “힘줄의 아래쪽 가장자리”, “힘줄의 위쪽”, “힘줄의 아래”도 위의 그림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힘줄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손가락으로 자세히 탐색해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동은 특수한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직 손가락 끝의 촉각적 감각을 통해서만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맥의 노선의 차이와 변이에도 불구하고 촉각적 탐색이란 동일한 방법으로 노선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맥구경』에서 제시된 신체부위에서 촉각적 대응물을 실제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맥들은 촉각적 탐사를 통해 발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촉각적으로 맥박을 탐색할 수 없는 부위와 문헌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예를 들어 만약 비태음맥과 비거음맥의 하완부위의 노선 방향을 상완으로 그대로 연장한다면 상완의 내측 보다는 전면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맥박이 탐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맥구경』의 맥들은 피부를 절개해서 신체 내부를 관찰하는 해부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31)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 muscle)과 장장근(palmaris longus muscle)의 힘줄들이다.

32) 송석모. 『영추·본수』의 한 연구: 경혈의 시각성과 촉각성.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21;38(4):290-307.



신체 외부에서 지각된 대로 관찰하는 지각적 해부학의 방법을 통해 발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에 신체의 절개를 통해 발견했다면 이처럼 맥의 노선이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대 해부학에서처럼 복잡한 맥관체계(vasculature)로 묘사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족비경』의 저자는 상완부위에서 비태음맥과 비소음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후자에 대응하는 상척측부동맥(superior ulnar collateral artery)

은 전자에 대응하는 상완동맥(brachial artery)에서 분지되어 팔꿈치 부근에서 다른 동맥들과 문합되는 작은 동맥이다.<sup>33)</sup> 『족비경』의 저자는 이 두 개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독립된 경맥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양자 간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측각으로만 탐지하여 구분하면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맥구경』의 비음맥들에 대응하는 동맥을 추측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경맥과 동맥의 대응

	손	하완	상완	겨드랑이	옆구리	심장
『足臂經』 臂太陰脈		Radial a.	Brachial a.	Axillary a.		Heart
『陰陽經』 臂鉅陰脈	Superficial palmar arch/Common palmar digital a.	Radial a.	Brachial a.			Heart
『足臂經』 臂少陰脈		Ulnar a.	Superior ulnar collateral a.		Lateral thoracic a.	
『陰陽經』 臂少陰脈		Ulnar a.	Brachial a.			Heart

a. : artery (arteries)

#### 4. 臂陰脈의 流注方向이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은 探索方向이다

『맥구경』의 경맥들은 『음양경』의 견맥과 족태음맥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상하지의 원위부에서 머리쪽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영추·경맥』의 순환체계와 비교해서 유주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이 『맥구경』의 일부 맥들이 측각적 탐사를 통해서 발견되었다면 발견자는 탐색을 진행하는 순서에 의거해서 그 맥의 위치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맥의 박동은 상하지의 원위부에서 현저하게 느껴지고 머리쪽으로 갈수록 피하조직의 두께가 증가하여 박동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련된 관찰자라면 당연히 사지의 원위부에서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맥구경』의 저자가 정말로 경맥이 흐른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장소나 이동을 표시하기 위해 “起(시작하다, 일어나다)”, “循(따라가다)”, “奏(가다)”, “之(가다)”, “出(나오다)”, “上(오르다)”, “枝(갈라지다)”, “貫(뚫다)”, “穿(뚫다)” 등을 이용하여 기

술하고 있을 뿐 흐름을 의미하거나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奏”를 “湊”로 해석하는 주석자가 있으며 물수 변이 들어가 있으므로 물의 흐름이 함축되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1-1)의 번역에서 설명한 대로 물체의 이동 혹은 마치 나무줄기를 따라 훑어보는 것처럼 관찰자의 시촉각적 시선(visuo-haptic gaze-line)의 이동을 표현하는 『맥구경』 전체 문맥상 “가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현대의 해석자들이 『영추·경맥』의 순환관념을 『맥구경』에 대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영추·경맥』의 순환관념은 천체의 운행과 강의 흐름이란 관념을 인체에 도입된 것으로 天人相應의 한대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점은 『맥구경』의 경험주의적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맥구경』의 저자들은 맥에 대해 감각할 수 있는 정보만 기록하고 감각할 수 없는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추측이나 설명도 하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언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sup>35)</sup> 맥의 증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맥구경』의 저자들을 기록이 남아있는 중국의학사 최초의 경험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맥

33) Doyle James R, Botte Michael J. 『Surgical anatomy of the hand and upper extremity』. Philadelphia: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3:246.  
 34) 李建民. 『發現古脈—中國古典醫學與數術身體觀』.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144;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華夏出版社. 2001:397-402.  
 35) 맥의 이름에 三陰三陽을 채택한 것이 유일한 형이상학의 흔적이다.



구경』의 저자가 흐름 혹은 운행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탐색의 진행 방향이 경맥의 기술순서에 먼저 반영된 후에 부가된 것은 아닐까? 촉각체계가 아니더라도 고대 중국인들이 지각체계를 통해 경맥을 탐색하고 발견하였다면 의류에 덮혀 있는 몸통 보다는 노출이 쉽고 접근도 용이한 손발과 팔다리에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맥구경』 경맥의 유주방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1차적으로 탐색의 방향이고 2차적으로 관찰 결과의 기록순서이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흐름이나 운행의 관념이 부가되었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로부터 미루어보자면 『영추·본수』의 노선방향이 『영추·경맥』과 다르고 『맥구경』과는 같은 이유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5. 臂陰脈은 假想의 路線이 아니다

黃龍祥은 경맥 개념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처음에는 고대인이 인체의 상하에 연계되어 있는 양쪽 진맥 부위를 서로 연결시키거나 손목·발목 부위의 박동과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위를 서로 연결시켰다. 다음에는 서로 연결시킨 두 부위 사이의 노선 안에 존재하는 더 많은 박동 부위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경맥의 노선을 구체화시켰다.<sup>36)</sup> 구체적으로 그가 『맥구경』 비음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표 3에 정리해보았다.

표 3. 黃龍祥의 臂陰脈 說明

경맥	구절	맥박 위치
『足臂經』 臂太陰脈	循筋上廉	手太陰 寸口脈
	出腋內廉	腋內動脈 天府脈
『陰陽經』 臂鉅陰脈	出內陰兩骨之間	手太陰 寸口脈
	出臂內陰	天府 動脈
『足臂經』 臂少陰脈	出臑內下廉	腋下動脈
	出腋	腋動脈 極天穴
	湊脅	天池脈
『陰陽經』 臂少陰脈	起於臂兩骨之間, 下骨上廉, 筋之下	神門脈
	出臑內陰	天府脈

\* 황룡상 자신의 교감에 의한 것이므로 본고의 구절과 다른 부분이 있다. 본고는 맥박을 통해 경맥 노선을 가상으로 결정하였다는 그의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황룡상은 주로 “出”로 표현된 구절들에 주목한다. 그는 이 구절들이 『맥구경』에서 진맥하는 곳, 특히 맥박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sup>37)</sup> 하지만 그의 해석은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출”자의 표현이 없는 구절도 필요에 따라 맥박이 있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맥박으로 해석한 위치들을 『맥구경』보다 후대의 의학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혈들과 대응시키고 있다. 그는 비음맥의 노선이 이 맥박이 뛰는 곳 사이를 연결해서 만든 가상의 노선 즉 “虛線”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에게 경맥은 마음 안에 있는 “개념”이지 세계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본고에서 말하는 비음맥의 발견은 촉각체계를 통한 경맥의 “직접 지각”이다. 황룡상의 설명처럼 특정혈들만이 맥박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비음맥 노선 전체가 맥박이다. 최소한 비음맥은 『맥구경』의 저자가 그것의 존재를 직접 관찰해서 기록한 것이지 추측이나 상상을 통해 가상의 노선을 그린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비음맥은 마음 안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에 실존하는 어떤 것을 기술한 것이다.

### 6. 臂陰脈은 身體切開(dissection)를 통해 發見된 것이 아니다

Vivien Shaw 등의 연구는 본고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거나 오류가 많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Shaw 등은 마왕퇴 『맥구경』 본문을 영역하고 실제 사체의 부검을 통해 『맥구경』의 경맥이 실제 해부를 통해 발견된 다양한 동정맥임을 보여주려고 시도하고 있다.<sup>38)</sup> 마왕퇴 의서가 침술의 역사를 신비와 비밀의 역사가 아니라 과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이들의 결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들의 해부학적 연구는 그 근거가 되는 문헌 연구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다. 첫째, 단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보았듯이 “廉”은 항상 가장자리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서는 “모서리(corner)”로 어떤 곳에서는 “능선(ridge)”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족비경』과 『음양경』의 본문들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번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소음경의 원문을 번역하면

36)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 華夏出版社. 2001:459.

37)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 華夏出版社. 2001:497.

38) Vivien Shaw, Rui Diogo, Isabelle Catherine Winder. 「Hiding in plain sight - ancient Chinese anatomy」. The Anatomical Record. 2020; 305(5):1-14.

서 어떤 구절은 『족비경』에서 가져오고 어떤 구절들은 『음양경』에서 가져와서 번역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다. 셋째, 원문에 없는 내용을 번역해서 삽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태음맥의 원문에 대응하는 구절이 없는 “(상완이두근) 힘줄 아래에서 상완이두근으로 이동(travel below the sinew into the bicep)”이란 구절을 추가하고 있다. 아마 이들이 경맥이 지나간다고 보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번역에 반영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자의적으로 번역한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들이 비소음맥 내용을 영어로 번역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손목) 힘줄의 아래 모서리에서(번역자 주석(이하 동일): 『족비경』 循筋下廉) 아래쪽 뼈의 위쪽 능선으로 직진한다(『음양경』 下骨上廉). 힘줄의 아래를 통과하여(『음양경』 筋之下) 내음의 이두근을 따라(『음양경』 出臑內陰) 겨드랑이로 가서 겨드랑이를 나와서(『족비경』 出腋) 옆구리에서 모인다(『족비경』 湊脅).”

이들은 『족비경』의 “循筋下廉”과 『음양경』의 “下骨上廉”, “筋之下”가 동일한 장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모르고 각각 다른 위치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또한 『족비경』의 힘줄과 『음양경』의 힘줄이 동일하게 요측수근굴근·장장근의 힘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힘줄은 상완요골근의 힘줄로, 후자의 힘줄은 이두근건막으로 잘못 대응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소음맥의 노선을 잘못된 동맥들에 대응시키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이들은 하완에서는 요골동맥, 상완에서는 상완동맥, 옆구리에서는 상완동맥의 늑상완분지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맥들의 노선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아준다면 차라리 『족비경』 비태음맥의 노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고가 동의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점은 전체적인 접근방식이다. 이미 말했듯이 『족비경』과 『음양경』의 비음맥들은 신체 표면에서 촉각적 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지 신체를 절개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Shaw 등은 예를 들어 『맥구경』의 저자가 인체의 심부에 있어 촉각적으로 탐색할 수 없는 쇠골하동맥, 대동맥궁, 상행대동맥 등을 비태음경맥과 동일시하고 있다. 『맥구경』의 저자에게 비음경맥은 동맥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만이 비음경맥인 것이지 맥박을 느낄 수 없는 관찰불가능한 영역은 고려의 대상

도 아니고 경맥일 수도 없다. 동일한 관점으로 『맥구경』의 저자들은 비태음맥 이외의 경맥들도 여전히 절개 해부학이 아닌 지각적 해부학의 방법으로 경맥을 탐색하였다고 예상한다. 본고는 『맥구경』의 전체 경맥을 다루지 않고 비태음 두 경맥만 연구한 상태이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마왕퇴 의서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부 아틀라스”라는 Shaw 등의 평가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맥구경』에 기록된 비음맥들이 대응하는 동맥들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언어와 지식 그리고 행동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현대의학에서 동맥은 혈액이 심장에서 신체의 다양한 부분들로 통과해 가는 혈관이다.<sup>39)</sup> 이처럼 동맥에 대한 지식은 혈관과 혈액에 대한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혈관은 혈액을 운반하는 근육으로 된 관들의 네트워크이고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정맥, 세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0)</sup> 혈액은 심장에서 모든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뿔어져 나오는 액체이고 혈장이라 불리는 투명하고 노란 체액과 유형성분인 백혈구·적혈구·혈소판으로 구성된다.<sup>41)</sup> 결국 동맥에 대한 지식은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 전체 나아가 현대과학 전체 더 나아가 현대문명 전체의 지식 체계의 일부이며 전체 지식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과연 고대 중국인들이 이러한 지식체계를 가졌을까? 다른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자. 고대 중국인에게 어떤 경맥(여기서는 비태음맥)은 피부를 통해 만졌을 때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며 적당한 탄성을 느낄 수 있으며 손가락 끝에서 규칙적인 충격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해부학자에게 이것을 피부 바깥에서 만져보라고 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말해보라고 해보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 과학적 지식에 대해 중립적인 지각적 해부학의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sup>42)</sup> 그렇지만 비음맥을 통해 얻은 결과를 『맥구경』의 모든 경맥에 적용시키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맥구경』의 다른 경맥들은 또 다른 방법과 원리를 통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논할 Li와 Kumaratilake 등의 연구 역시 고대 중국인들이 해부학적 절개를 통해 경맥을 발견하였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미 논한 것처럼 본고가 동의할 수

39) “arteries”. O’Toole Marie T. 『Mosby’s medical dictionary』. St. Louis:Elsevier. 2017:136.

40) “blood vessel”. O’Toole Marie T. 『Mosby’s medical dictionary』. St. Louis:Elsevier. 2017:225.

41) “blood”. O’Toole Marie T. 『Mosby’s medical dictionary』. St. Louis:Elsevier. 2017:221-222.

42) 동일한 방식으로 고대 중국인에게나 현대 천문학자에게나 기반하는 지식체계의 차이와 상관없이 태양은 하늘에서 보이고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지각적 천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없는 주장이다.

## 7. 臂厥陰脈이 不在한 理由

『맥구경』의 足六脈 臂五脈의 11경맥 체계에는 『영추·경맥』의 足六脈 手六脈 12경맥 체계에 있는 手厥陰脈이 부재하다. 『맥구경』에 비궤음맥이 부재하고 『영추·경맥』이 12경맥 체계로 변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설은 數秘學( numerology)의 관념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廖育群에 따르면 11개라는 숫자는 아직 경맥계통이 완전하지 않아서 맥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天六地五”와 “음홀양짝(陰奇陽偶)” 관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43)</sup> 李建民은 “11맥에서 12맥으로의 설계과정에는 인위적인 설계성분 즉 “12”라는 수의 도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있다”고 설명한다.<sup>44)</sup> 다시 말해 11맥체계에서 12맥체계로 변화한 것은 수비학적 관점이 변화하였기 때문이고 각각의 경맥체계는 해당 수비학적 관념에 준거하는 한 자기완결적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관념사적인 설명과 달리 미국의 침구사 Li는 12번째 경맥이 추가된 데에는 해부학적 발견이 놓여져 있다고 제안한다. 성인의 약 30%에게서 지속성 정중동맥(persistent median artery, PMA)이 전완의 주요한 혈관변형의 하나로 관찰되고 이 혈관은 최근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수궤음맥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PMA는 1800년대 중반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수궤음경이 PMA와 동일한 경로를 주행한다.<sup>45)</sup> 해부학자 Kumaratilake 등은 Li의 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 PMA와 수궤음경 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장을 지지한다. 정중동맥은 태아기에 존재하다가 기능을 척골동맥(ulnar artery)과 요골동맥(radial artery)이 대체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퇴화한다. 그런데 정중동맥은 인구의 약 30%에게 남아있고 평생동안 기능이 지속된다. 정중동맥의 표현형에는 수장 유형(palmar type)과 전완 유형(antebrachial type)이 있다. 전자는 손으로 들어가서 척골동맥과 함께 표재수장궁(superficial palmar arch)을 형성하거나 하나 이상의 총장측지동맥(common

digital arteries)를 형성한다. 후자는 완관절에 도달하기 전에 끝난다. 따라서 팔꿈치에서 수근관 원위 중지부까지의 수궤음맥의 구역은 수장 유형 정중동맥의 경로에 대응한다. 20세기 이전 정중동맥의 인구 비율은 10% 정도였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의학자들이 손목의 정중동맥 맥박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환자들을 철저히 검사하였다고 보다는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의 팔을 촉진하였을 것이다.<sup>46)</sup>

위의 관념사적 설명과 해부학적 설명을 종합해서 다음 설명을 제안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인들이 11경맥체계의 자기완결성에 만족하였다면 정중동맥과 그 맥박의 부재는 전혀 의심이나 탐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12”에 대한 수비학적 관념이 11경맥체계의 완결성을 깨트리고 결여와 부재로 느끼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중동맥의 인구비율상 정중동맥 맥박의 존재는 평균에서 벗어난 이상현상에 가깝다. 그런데 12에 대한 수비학적 관념은 반대로 어떤 맥박의 부재를 이상현상으로 생각하고 결핍을 해결하고 새로운 완결성을 완성하기 위해 그것의 존재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영추·경맥』의 저자 역시 지속성 정중동맥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환자에서 촉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맥박의 장소 범위를 가지고 수궤음맥의 노선을 확정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Ⅲ. 결론

마왕퇴 출토 의학문헌 중 『족비십일맥구경』의 비태음맥, 비소음맥과 『음양십일맥구경』의 비거음맥, 비소음맥 부분에 기술된 경맥의 노선은 실제 인체에서 촉각체계를 통해 직접 탐지 가능한 맥박의 노선과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일부 경맥은 객관적으로 지각가능한 신체적 대응물이 존재한다. 이 대응물은 오늘날 동맥이라고 부르는 것의 촉각가능한 부분이다. 오늘날 비음맥의 유주방향이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은 맥박을 탐색해 나가는 방향이다. 이

43) 廖育群. 『岐黃醫道』. 沈陽:遼寧教育出版社. 1991:187.

44) 李建民. 『發現古脈—中國古典醫學與數術身體觀』.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213.

45) Yong Ming Li. 「Persistent median artery may explain the transition from 11 to 12 meridians in ancient Chinese medicine」.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42-1443. Li는 수궤음맥 뿐만 아니라 수태음맥, 수소음맥도 동맥에 근거해서 발견되었다고 말한다. Yong Ming Li. 「Three hand yin meridians in ancient Chinese medicine were established initially based on arterial structures」.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94-1496.

46) Jaliya Kumaratilake, Teghan Lucas, Maciej Henneberg. 「Possible relationship of upper limb arteries, median and brachial to the twelfth meridian of the human upper limb」.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92-1493.

러한 사실은 경락의 노선이 추측에 의해 설정된 가상의 노선이라는 황룡상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맥구경』의 경맥이 해부학적 절개에 의해 발견한 것이라는 Vivien Shaw 등의 주장을 부정한다. 본고의 결론은 순경감전현상 예를 들어 경락이 內觀의 신비능력이나 경락민감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반박한다. 『맥구경』의 비음맥은 누구라도 손가락으로 만져서 찾을 수 있게끔 훌륭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의 관찰자가 동시에 다중시점에서 관찰가능한 시각의 객관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단일관점만 허용하고 재현이 어려운 촉각적 객관성의 특성이 경맥의 확인에 장기간 장애물로 작용한 것 같다. 본고의 연구가 고대 경맥의 발견 원리를 밝힐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1. 裴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5』. 北京:中華書局. 2014.
2. 裴錫圭 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 卷6』. 北京:中華書局. 2014.
3. 廖育群. 『岐黃醫道』. 沈陽:遼寧教育出版社. 1991.
4. 李建民. 『發現古脈—中國古典醫學與數術身體觀』.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6. 長濱善夫 著. 박종갑 譯. 『鍼灸基礎學』. 서울:東洋綜合通信大學教育部. 1973.
7. 張燦甲. 『黃帝內經文獻研究』.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5.
8. 周一謀, 蕭佐桃 編. 『馬王堆醫書考注』. 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9.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
10. 湖南省博物館 編. 『馬王堆漢墓帛書』. 長沙:岳麓書社. 2013.
11.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華夏出版社. 2001.
12. Doyle James R, Botte Michael J. 『Surgical anatomy of the hand and upper extremity』. Philadelphia: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3.
13. O'Toole Marie T. 『Mosby's medical dictionary』. St. Louis:Elsevier. 2017.
14. 송석모. 『『영추·본수』의 한 연구: 경혈의 시각성과 촉각성』.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21;38(4):290-307.
15. 송지청, 황성연, 안성훈, 엄동명. 「대한경락경혈학회지 연구동향」.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6;33(1):1-11.
16. 이로민, 남사수, 이상훈, 김용식. 「침 관련 근거중심의 학의 연구 동향 -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중심으로」. 대한침구학회지. 2009;26(2):147-158.
17. 毛良. 「足臂十一脈灸經의 脈是“感傳線”嗎? - 與孟昭威同志商確」. 上海針灸雜誌. 1985;4:33-35.
18. 劉登中. 「“經脈論”與“血脈論”孰是孰非」. 中華醫史雜誌. 2006;36(4):231-238.
19. 李定忠, 傅松濤, 李秀章. 「經絡研究概況及其存在的實證 - 關於經絡的理論與臨床應用研究之一」. 中國針灸. 2004;24(11):773-778.
20. 李曉君. 「論經絡與血脈的源流異同」. 中國中醫基礎雜誌. 2003;9(6):6-10.
21. 鄭健飛. 「馬王堆醫書釋文校讀及殘片綴合札記」. 文史. 2017;118(1):5-27.
22. 趙爭. 「古書成書年代與古書年代學問題 探研—以出土古脈書『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爲中心」. 中國典籍與文化. 2016;96(1):7-12.
23. Jaliya Kumaratilake, Teghan Lucas, Maciej Henneberg. 「Possible relationship of upper limb arteries, median and brachial to the twelfth meridian of the human upper limb」.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92-1493.
24. Juan Li, Qing Wang, Huiling Liang, Haoxu Dong, Yan Li, Ernest Hung Yu Ng, et al. 「Biophysical characteristics of meridians and acupoints: a systematic review」.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2;2012:1-6.
25. Yong Ming Li. 「Persistent median artery may explain the transition from 11 to 12 meridians in ancient Chinese medicine」.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42-1443.
26. Yong Ming Li. 「Three hand yin meridians in ancient Chinese medicine were established initially based on arterial structures」. Journal of anatomy. 2021;238(6):1494-1496.

27. Chunyu Liu. 「Review on the studies of unearthed Mawangdui medical books」. Chinese studies. 2016; 5(1):6-14.
28. John C Longhurst. 「Defining meridians: a modern basis of understanding」.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2010;3(2):67-74.
29. Norbert Maurer, Helmut Nissel, Monika Egerbacher, Erich Gornik, Patrick Schuller, Hannes Traxler. 「Anatomical evidence of acupuncture meridians in the human extracellular matrix: results from a macroscopic and microscopic interdisciplinary multicentre study on human corpses」.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2019:1-8.
30. Vivien Shaw, Rui Diogo, Isabelle Catherine Winder. 「Hiding in plain sight – ancient Chinese anatomy」. The Anatomical Record. 2020;305(5):1-14.